

# “작사랑의 정석, 대본 보고 한눈에 반했죠”

‘유열의 음악앨범’ 때 이미 출연 결정 결핍의 정서와 작사랑이 주된 얘기 사람들의 관계 통한 치유 과정 담아 작사랑 해본 적 없어 더 고민 많았죠



tvN 드라마 '반의반' 스틸컷

연기자 정해인이 '로맨스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 기세다. 작년 MBC '봄밤'과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등을 거쳐 23일 첫 방송하는 tvN '반의반'을 통해 다시 한번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이번에는 2018년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얻은 로맨틱한 연하남의 이미지를 벗고 "작사랑의 정석"에 도전한다.

드라마 '반의반'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래머 하원(정해인)과 클래식 녹음엔지니어 서우(채수빈)의 작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시청자의 기대 섞인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해인에게 쏠린다. 로맨스 장르 작품을 연달아 소화하면서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둔 덕분이다.

정해인은 특히 이번에는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의 이숙연 작가와 다시 의기투합한다. 이숙연 작가는 2016년 KBS 2TV '공황 가는 길'로 섬세한 필력을 자랑한 바 있다. 16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정해인은 "영화를 촬영할 때 받은 '반의반' 대본에 반해 일찌감치 차기작으로 점찍었다"며 이 작가를 향한 신뢰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연출은 2월 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 홀로 그대'와 2018년 tvN '아는 와이프'로 이름을 알린 이상엽 PD가 맡는다.

같은 장르의 전작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정해인은 "결핍의 정서와 작사랑"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해인은 "드라마의 모든 인물이 (정서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사람과 관계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연기했던 캐릭터 중 가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주인공"이라고 이번 캐릭터를 소개하고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한 작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더욱 고민을 많이 했다"며 웃었다.

1988년생인 정해인은 손예진, 한지민 등 주로 연상의 배우들과 로맨스 호흡을 맞춰왔다. 이번에는 6살 연하인 1994년생 채수빈과 함께 한다. "연기할 때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는 "채수빈의 밝은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빈은 정해인과 '케미스트리'에 대해 "80점"의 점수를 주며 "(정해인이) 배려심이 많아 즐겁다"며 촬영 과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드라마 '봄밤'과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등을 거쳐 tvN '반의반'으로 또 다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선 정해인. 상대역 채수빈과 작사랑의 이야기를 펼친다. 사진제공 | tvN



## 연예뉴스 HOT 3

### 가수 리아 20일 싱글앨범 '봄' 컴백

메가 히트곡 '눈물'의 주인공인 가수 리아가 돌아온다. 소속사 BY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리아는 20일 싱글 '봄(Spring)'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17일 관련 티저 영상도 공개한다. '봄'은 신중현이 쓰고 김정미가 부른 1973년 노래의 리메이크작이다. 특히 신중현의 장남이자 그룹 시나위의 리더인 신대철이 편곡과 프로듀싱을, 3남 신석철이 드럼 세션을 맡아 눈길을 모은다. 리아는 반석의 헤어스타일에 귀와 코를 이어주는 체인 등 파격적인 패션으로 젊은층에도 다가갈 기세다. 한편 리아는 지난해 지역의 숨은 아티스트들과 문화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전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올해 고려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 홍석천, 휴업한 레스토랑 공간 공유

방송인 홍석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한 레스토랑 공간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겠다고 나서 화제다. 홍석천은 16일 SNS를 통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해온 레스토랑의 임시 휴업 사실과 함께 "월세 935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이 공간을 이용하곤 영정 넘치고 콘텐츠 좋은 분들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음식이라도 좋고 플라마켓 해도 되고 유튜브 촬영도 좋다. 지자체와 연결해 특산물 유통도 좋다"면서 "소개하고픈 아이템이 있으면 디엠으로 연락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영화 '정직한 후보' 손익분기점 넘어

라미란 주연 영화 '정직한 후보'가 국내 관객 집계와 해외 판권 판매 등을 포함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정직한 후보'는 16일 오전 150만 관객(영화관람장통합전산망)을 넘어면서 해외 판권 판매 규모 등을 합쳐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이익을 남기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 관객이 사상 최저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정직한 후보'는 4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극장가 기지개...국내 시사회·외화 깜짝 개봉

###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사회 19일 '온다' 20일 '페인티드 버드' 공개

영화계와 극장가가 소극적으로나마 기지개를 펴고 있다. 한 달여 만에 한국영화 시사회를 재개하고, 외화도 속속 작품을 공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대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연기자 성훈과 김소은이 주연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의 언론 및 배급업체 대상 시사회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월드컵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린다. 2월 중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중단됐던 한국영화 시사회로는 2월 17일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 전까지 매주 평균 두 세 차례씩 언론배급 시사회가 진행됐다.

2017년 촬영한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완성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개봉 시기를 다시 논의하기 여의치 않는 현실에서 25일 개봉기로 하고 시사회도 진행한다. 다만 제작진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시사회 당일 마스크 미착용자의 상영관 출입을 통제하고, 상영관 좌석 사이 공석을 두는 '띄어 앉기' 캠페인에 동참한다. 18일과 19일 진행되는 주연배우들의 인터뷰 역시 시간을 최소화해 줄이고 밀집 접촉을 피하도록 자리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어 17일 일본 공포영화 '온다'와 19일 기예르도 델 토로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스케어리 스토리:어둠의 속삭임', 20일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페인티드 버드' 등 외화도 시사회를 연다. 각 수입사 측은 세부 공지를 따로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거듭 알리고 있다. 특히 시사회 도중 마스크를 반

드시 착용하라는 지침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영화와 외화가 속속 개봉하고 뒤이어 4월 말에는 스칼릿 조핸슨의 여성 히어로물 '블랙위도우'도 공개된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블스튜디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히어로 시리즈인 만큼 관객 관심이 실제 관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영화들은 여전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개봉을 연기했거나 상반기 개봉을 준비해온 한 영화의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16일 "3월에는 사태가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4월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면서 "한국영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봉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은 7·8월 여름 개봉작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들의 건강학

### 20대 척추질환 급증...도수치료로 신체 불균형 교정하세요

스마트폰과 PC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과 허리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디스크 탈출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처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수치료를 이용한 비침습적 치료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약물이나 주사, 시술 등이 아닌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손만으로 이뤄지는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도수 의학을 접목해 척추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 골격, 근육의 정상화와 틀어진 근골격계를 바로잡아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다.

도수치료는 특히 부작용이나 후유증,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며 회복 시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아 치료를 위해 따로 휴가 등의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노년층 역시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 방법으로 정형외과에 따라 치료 효과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물리치료사의 치료 경력, 노하우가 풍부한지 확인한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 및 척추 관절질환 예방을 위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이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승현 가산 정형외과 척나은의원 대표원장

## 신간

### 대청봉 야생화에게 말을 걸다



#### ● 설악산 아모르 야생화 아모르 (최기수 저 | HNCOM)

2006년 대청봉을 처음 오르고 공룡능선을 넘으며 설악산과 인연을 맺은 저자는 설악산 그리고 그 속에는 야생화와 대화하고 소통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저자는 "설악산과 소통을 잘 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야생화는 눈높이를 맞추려면 자신이 먼저 낮춰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말한다. 키 작은 야생화를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는 먼저 꽃 앞에 납작 엎드려 눈을 맞추고 대화해야 한다.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3부 '환희' 편에서는 저자만의 설악산 즐기기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편하게 설악산과 야생화를 '읽을 수' 있는 책, 소통의 방법과 산이 주는 의미는 담이다.

### '대화의 달인'의 48가지 기술



#### ●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습관의 비밀 (노로 에이시로 저·신찬욱 옮김 | 곰지락)

일본의 히트 방송작가이자 기업의 PR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노로 에이시로의 책, 직업상 끝없이 회의를 해야 하는 그가 발견한 '말이 서툴러도 상대에게 사랑받고 호응받고,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48가지'를 정리해 놓았다. 저자의 웃픈 실제 사례가 다수 소개되어 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 낮은 가리의 사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민인 사람도 협상과 회의는 물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말습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대화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까'보다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말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형도 기자 hmyang0307@donga.com